

초등학교 1학년 5단원 국어 정답 및 해설

※ 국어영역 ※

정답

01	②	02	④	03	④	04	③	05	⑤
06	②	07	⑤	08	⑤	09	①	10	④
11	②	12	④	13	③	14	⑤	15	⑤
16	④	17	③	18	④	19	⑤	20	③
21	⑤	22	①	23	④	24	①	25	②

해설

- ② 인사는 마음을 담아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해야 한다.
- ④ 마음을 담아 바르게 인사하면 인사를 받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진다. 또, 마음을 담아 바르게 인사하면 상대도 나에게 바르게 인사를 해 주고, 칭찬을 받을 수 있다. 친구끼리 더 친해지고 예의를 갖추게 된다.

[오답풀이]
①, ②, ③ 마음을 담아 바르게 인사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.
⑤ 한 번 인사를 했어도 다음에 만나면 다시 인사를 해야 한다.
- ④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알아본 것은 인사를 해 본 경험이 아니다.

[오답 풀이]
①, ②, ③, ⑤ 부모님, 선생님, 친구들, 친구 어머니께 인사를 해 본 경험이다.
- ③ 아침 등굣길에 친구를 만나서 인사를 하는 상황이다. 아침에 친구들과 나누는 인사이므로 '잘 잤니?, 좋은 아침이야.'라고 인사하는 것도 적절하다. '고마워'라는 인사말

은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인사말이므로 그림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.

- ⑤ 어른에게 인사를 할 때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할 때와 다르게 인사를 해야 한다. 어른에게 인사를 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목과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해야 한다.

[오답 풀이]

- ① 인사를 할 때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.
- ② 어른에게 인사를 할 때는 "안녕하세요."라고 해야 한다.
- ③, ④ 어른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알맞지 않다.

- ② 친구에게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할 때는 '즐거운 표정'으로 인사해야 한다.

- ⑤ '아침에 일어나 부모님께 / 웃는 얼굴 하고 인사를 건네요'라고 했으므로, 글쓴이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모님께 인사를 했음을 알 수 있다.

- ⑤ 학교에 가기 전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것이므로, '학교 다녀오겠습니다.'라는 인사말이 알맞다.

[오답풀이]

- ① '고맙습니다'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인사말이다.
- ② '잘 먹겠습니다'는 밥을 먹기 전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인사말이다.
- ③ '안녕히 주무세요'는 잠을 자기 전에 하는 인사말이다.
- ④ '학교 다녀왔습니다'는 학교에 다녀와서 하는 인사말이다.

- ① '고맙습니다'는 고마운 마음이 담긴 인사말이다. 집에 할머니께서 오셨을 때는 '안녕하세요.'와 같이 반가운 마음이 담긴 인사말을 하는 것이 알맞다.

10.
④ “안녕”은 반가운 마음이 담긴 인사말이다.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물을 때 하는 인사말이다.

11.
② 인사를 할 때는 마음을 담은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전해야 한다. ‘안녕하세요?’, ‘다녀오셨어요?’, ‘축하해’가 바른 인사말이다.

[오답풀이]
‘까꿍’이나 ‘저리 가’라는 인사말은 바른 인사말이 아니다.

12.
④ 동생이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아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축하하는 마음을 담은 인사말을 해야 한다. ‘축하해’라는 인사말이 가장 적절하다.

13.
③ 아버지가 퇴근 후 집에 돌아 온 상황이므로, ‘다녀오셨어요?’라는 인사말이 가장 적절하다.

14.
⑤ 민서는 아침 등굣길에 만난 지아에게 ‘안녕’이라는 인사말 대신 ‘축하해’라고 말했다.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는 상황이 아니므로, 지아가 고개를 갸우뚱한 까닭은 민서가 상황에 맞지 않는 인사말을 했기 때문이다.

15.
⑤ ‘축하해’는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는 상황에 하는 인사말이다. 친구가 운동장에서 다른 친구의 발을 밟았을 때 축하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.

[오답풀이]
①, ②, ③, ④ 친구의 생일일 때, 친구가 상을 탔을 때, 친구의 성적이 올랐을 때, 친구가 갖고 싶던 선물을 받았을 때 축하하는 마음을 전해야 한다.

16.
④ 인사를 할 때는 걸음을 멈추고 바른 자세로 공손하게 인사해야 한다. 머리를 긁거나 바닥을 바라보거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. 고개만 가볍게 까딱이는 것은 예의 바른 인사 방법이 아니다.

17.
③ ‘안녕히 주무세요’는 집에서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부모님께 하는 인사말로, 학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.

18.
④ 아픈 친구의 병문안을 간 상황이다. ‘몸은 좀 괜찮니?’나 ‘빨리 나아서 같이 놀자’라는 인사말이 알맞다.

19.
⑤ 병문안을 와서 걱정해 주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이다. ‘걱정해 줘서 고마워’라는 인사말이 가장 알맞다.

20.
③ 아픈 친구의 병문안을 간 상황으로, (나) 친구는 ‘걱정하는 마음’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.

21.
⑤ 길을 가다가 아는 어른을 만나면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인사를 해야 한다.

22.
① ‘안녕, 잘 가’라는 인사말은 만나서 반가운 인사말이 아니라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다.

23.
④ 인사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. ‘생신 축하드려요’는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로, 동생에게는 ‘생일 축하해’라고 이야기해야 한다.

24.
① ‘부끄러운데 그냥 갈까, 어쩔까?’라는 부분에서 부끄러워서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였음을 알 수 있다.

25.
② 인사는 서로 관계를 친하게 하고, 듣는 사람과 하는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, 예의를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